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EPL 공동 득점왕, 6월14일 한국-이집트 A매치서 재격돌

## 손흥민 vs 살라, 서울서 '왕의 전쟁'



23골로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세계적 공격수들이 6월 14일 상암벌에서 격돌한다. 한국-이집트의 A매치다. 3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 이란과 홈경기에서 득점한 뒤 포효하는 손흥민(왼쪽)과 2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강전에서 카메룬을 꺾고 기뻐하는 모하메드 살라.

벤투호 6월 A매치 4연전의 피날레 살라 엔트리 포함 등도 옵션에 포함 이집트는 본선 불발, 킬러 대결 조짐 살라, 자신의 SNS에 '축하해 소니' EPL 올해의 골 후보도 나란히 올라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23골)에 오른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과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다시 한번 충돌한다. 무대는 한국에 차려진다. 그것도 A매치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6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와 격돌한다. 브라질(2일·서울)~칠레(6일·대전)~파라과이(10일·수원)에 이은 6월 A매치 4연전의 최종전이다.

최근 이집트 매체들이 6월 자국대표팀의 방한경기가 성사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KFA)도 26일 이집트와 A매치 개최를 발표했다. 이집트와 평가전 자체는 비교적 빨리 결정됐으나,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인해 발표를 미뤘었다.

특히 세부 조율 중인 옵션에는 '살라의 방한 엔트리 포함 및 일정시간 출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적 스타의 출전 여부에 따라 개런티 금액이 전혀 달

손흥민(한국)	구분	살라(이집트)
1992년 7월 8일	생년월일	1992년 6월 15일
183cm	키	175cm
토트넘	소속팀	리버풀
35경기 23골(득점 공동 1위)	21~22시즌 EPL 성적	35경기 23골(득점 공동 1위)
232경기 93골·46도움	EPL 통산 성적	193경기 120골·47도움
골든부트(1회)	주요 수상 경력	골든부트(3회)
올해의 골(1회)		올해의 선수(1회)
이달의 선수(3회)		이달의 선수(4회)

라질 수 있음을 이집트축구협회 또한 잘 알고 있어 살라의 내한 가능성은 적지 않다. KFA도 '살라가 빠진' 이집트와 대결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살라는 일단 내한 명단에는 포함됐다.

10회 연속,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과 달리 이집트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탈락했다. 3월 아프리카 플레이오프(PO)에서 라이벌 세네갈에 밀려났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32위로, 한국(29위)보다 뒤진다. 상대 전적은 5승7무5패로, 2005년 2월 국내에서 벌어진 평가전(0-1 한국 패)이 마지막 대결이다.

살라가 예정대로 방한할 경우 손흥민과 맞대결이 단연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둘은 23일(한국시간) 끝난 EPL 최종전(38라운드)까지 뜨겁게 경쟁했다. 손흥민은 노리치시티와 원정경기에서 멀티골을 몰아쳤

고,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살라는 올버햄턴과 홈경기에서 1골을 보태 공동 득점왕으로 시즌을 마쳤다.

손흥민은 23골을 모두 필드골로 채운 반면 살라는 5골을 페널티킥(PK)으로 만들었다. EPL에선 이 같은 차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지만 세부지표에서 밀린 탓인지, 손흥민은 아시아 최초의 'EPL 골든부트'를 수상하며 환하게 웃은 데 반해 공동 득점왕에 그치고 리그 우승까지 놓친 살라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래도 프로정신만큼은 그대로였다.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둔 살라는 24일 손흥민이 귀국하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띄우며 '축하해, 소니'란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3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될 '벤투호'에 합류할 손흥민은 EPL 사무국이 공개한 '2021~2022 올해의 골' 후보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1일 레스터시티전에서 원발로 감아 찬 환상적 킥이다. 만약 '올해의 골' 주인공이 된다면 번리전 70m 드리블 돌파 후 득점으로 수상한 2019~2020시즌에 이어 2번째다. 살라도 맨체스터시티전 드리블 득점으로 손흥민과 함께 후보 명단에 올랐다.

▶ 손흥민 관련기사 6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이승미 기자의 칸 리포트



영화 '다음 소희'를 주연한 김시은(왼쪽)과 정주리 감독이 26일(한국 시간)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트윈플렉스파트너스

### 칸의 마음 뒤흔든 '다음 소희' 시사회 400명 관객 눈물평평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 언론시사회 공개 외신기자들, 정주리 감독 찾아 "너무나 감동"



FESTIVAL DE CANNES

열악한 현실에서 끝내 헤어날 수 없는 어린 여성의 고통과 죽음. 한국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그린 이야기 가가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의 비평가주간 폐막작인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25일(한국시간) 공식 상영을 앞두고 언론 시사회로 공개됐다. 비평가주간은 프랑스비평가협회 주관하는 비공식 색연으로 한국영화가 폐막작으로 선정된 건 처음이다.

영화는 2017년 전주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아 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생인 특성화고 여고생 소희의 아픔을 그렸다. 시사회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 등 400여 관객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이날 영화가 상영된 칸 에스페이스 미라마르 극장 앞에서는 상영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선착순 입장을 기다리며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취재진과 관객이었다.

400석의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찼다. 2014년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데뷔작 '도희야'로 칸을 찾아 호평 받은 정주리 감독의 신작에 대한 관심이기도 했다.

반응은 기대보다 더 뜨거웠다. 엔딩 크레딧이 오르는 내내 눈물을 흘리거나 훌쩍이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외신기자들은 정주리 감독과 김시은에게 다가가 "너무나 감동했다"며 정중히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아바 카헨 비평가주간 집행위원장은 "충격적이면서도 눈을 땔 수 없게 하는 작품"이라며 "비정규직과 원청·하청 구조에 의한 젊은 여성들의 노동 착취를 비판하는 영화가 능수능란한 각본과 연출력, 두 여배우의 진실함으로 완성됐다"고 호평했다.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은 "어린 고교생을 집어삼키는 오싹한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보도했다.

정 감독은 "누군가는 나처럼 아이들의 죽음을 끝까지 궁금해 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낯선 신에 김시은을 주인공으로 발탁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 감독은 첫 만남에서 "이 역할을 꼭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 영화는 꼭 세상에 나와야 해요"라고 말하는 김시은에게서 "비범함"을 느꼈다고 돌아왔다.

'도희야'에 이어 배우들에게 리브롤을 다시 보낸 것도 "시나리오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소희가 겪은 일의 진실에 관심을 갖는 '진짜 어른'을 연기할 배우가 떠오르지 않았다. 배우나가 거절했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지도 못했을 영화다"고 말했다.

칸(프랑스) | smlee@donga.com

CJ WELLCARE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양배추·국산), 사과(충청남도(사과·국산), 브로콜리(충청남도(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

100% 국산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